

삼천도서관, 창의적 책 놀이터로

29일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 야호 책 놀이터 · 정글집 소극장 등 조성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이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샘솟는 창의적인 책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삼천도서관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29일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방형 창의도서관은 기존의 정숙이 강조되는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 분위기로 만들어 모든 세대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독서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다.

삼천도서관 1층의 경우 어린이 책 놀이터 '뽕이네'와 유아 책 놀이터 '반딧불이네', 북극브, 오두막, 원형서가, 카페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야호 책 놀이터로 조성됐다.

또 기존까지 자유열람실로 활용됐던 2층에는 신간도서와 주제별 북 큐레이션 도서를 만날 수 있는 '책탈'과 종합자료실인 '책그루터기', 동아리방 등으로 바뀌었다.

3층은 휴식공간인 '책너머'와 개방감 있는 열람공간인 '책너머'가 들어섰다. 지하 1층에는 가족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정글집 소극장'이 생겼다.

특히 1층 어린이 책 놀이터 '뽕이네'에서 지하1층 '정글집 소극장'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과 정글집의 경우 복층형 구조로 조성돼 책과 놀이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이자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전체 좌석 수의 30% 이하 인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개관한 평화도서관과 이번 삼천도서관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립 도서관들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정적이고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자료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 전주가 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하겠다"며 "계속해서 차별화된 도서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조활동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제1단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

4월 23일까지 144명 인력 투입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 위한 발열체크 · 소독 등 진행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역일자리사업을 펼친다.

시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144명의 인력을 투입해 '2021년 제1단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전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객 발열체크

▲출입관리 ▲소독작업 ▲열화상카메라 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약 98만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게 되며, 주·연차수당과 공휴일 유급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만 18~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 987명을 접수해 144명을 선발했

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적극적인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시민 의견수렴의 마지막 과정인 속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속의토론회는 작년 말 선정한 시민참여단 120명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고자 진행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 의견수렴 마무리

시민참여단 속의토론회 가져... 토론회 결과 토대로 내달 말 전주시에 최종 권고안 제출키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지난 23일 시민 의견수렴의 마지막 과정인 속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약 1년 만에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속의토론회는 작년 말 선정한 시민참여단 120명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고자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120명 중 99명(82.5%)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10개 조로 나뉜 대면 토의와 함께 온라인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토의가 병행 실시됐다.

시민참여단 2차 조사와 함께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오전에는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및 공론화 의제 설명 이후 분임토의와 질의응답이, 오후에는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결정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임토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이후에는 최종 3차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늦어도 다음 달 말쯤에는 전주시에 최종 권고(안)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재 위원장은 "코로나19 정국에 돌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공론조사 속의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

리적인 옛 대한방직부지의 개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도출된 3가지 시나리오는 ▲'충분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날 추진한 시민참여단 속의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전주시 LIVE'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환경관리원 15명 공개 채용

전주시가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신규개발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할 환경관리원 1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 남녀로,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여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내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소 변동내역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소 변동초본, 응시원서, 이력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청소지원과(대우빌딩 7층 회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20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적성검사, 3차 체력평가, 4차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의 경우 거주기간과 연령, 병역관계 등 응시조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2차 인적성검사에서 성실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해 채용인원의 3배수인 45명을 선발하게 된다.

시는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기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모래주머니

옮기기 등 체력평가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청소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평가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15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시는 신규 채용이 완료되는 대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신규 개발지역과 퇴직자 발생 등에 따른 결원 지역에 환경관리원을 즉시 배치할 계획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15명을 신규로 배치함에 따라 그간 인원 부족 문제로 청소상태가 완전치 못했던 지역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거쳐 우수한 환경관리원을 선발해 보다 쾌적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중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전주시가 농가의 작업 능률은 높이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주)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총 3,200만원을 들여 중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리기와 경운기, 비료살포기, 농산물건조기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500만원 이하의 중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

가에 농기계 1대당 100만원 이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농업기술센터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저운저장고, 관정 지원, 중 소형 농기계 등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 달 5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규모와 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여 년 간 시비 6억원을 투입해 600여 대의 중 소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황관주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